

'24.2.1일
「금융보안 선진화 간담회」

모두 발언

2024. 2. 1.(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님, 금융결제원 박종석 원장님,
코스콤 홍우선 사장님,
그리고,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카드 및
네이버파이낸셜 CISO 여러분,
금융감독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I .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보안 정책 방향

최근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AI 활용 등과 같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고,
동시에 사이버 위협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서비스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금융보안체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위기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 모습을 바꾸어가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보안의 유연성 제고와 복원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역시,
제각기 처한 환경에 맞는 보안위협을 스스로 진단하고
고객과 금융안전을 위한 최선의 안전장치를 강구하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Cyber Resilience)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금융권과 함께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단계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권 자율보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를 통해
전자적 침해, 재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계로,
자율에 따르는 내·외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보안이 IT 부서만의 기술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고,
일선의 현업부서부터 최고 경영자, 이사회까지
책무를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내부 거버넌스를 재설계하고,
대형사고 등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외국과 같이,
금융회사가 수립한 위험관리 계획을 당국에 철저히 보고하고,
당국은 동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행을 검증하는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보안원 등을 통한 지원·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제3자를 활용한 협업거버넌스*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유럽은행감독청(EBA) 가이드라인 : 민간 보안기관 등 제3자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보안체계 등을 검증하고, 당국은 제3자의 자격·활동 적정성을 감독

이러한 자율보안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의 핵심가치로 인식하여
적극적 보안투자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마무리 말씀

나날이 복잡해지는 금융보안 환경에서
금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의
진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간의 규제개선 건의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 방안에 담긴 자율보안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융회사 역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보안상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선제적 · 능동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하여
안전한 금융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금융보안 선진화를 위한
다차원의 논의와 발전적 제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